



태림포장공업(주)

011280 | KOSPI | 종이목재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5. 03. 27 | 장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안길74 (태림포장공업 강당)

Executive Summary

▶ 태림포장공업은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와 감사의 선임, 그리고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인 장성원 후보자는 태림포장공업에서 사외이사로서 10년 넘게 장기간 재직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확고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그리고 감사 재선임 후보자인 조수원 후보자는 태림포장공업에서 30년 넘게 재직해 왔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관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감사로서 기업 지배구조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에 다소 부적합한 인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아울러 조문환 감사는 과거 코레일전기 감사 재직시 태림포장공업의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사이면서 사실상 일정 부분 경영에 개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역시 감사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제1호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2-1	사내이사 고삼규 재선임의 건	찬성	찬성
2-2	사내이사 정상문 재선임의 건	찬성	찬성
2-3	사외이사 왕기현 재선임의 건	찬성	찬성
2-4	사외이사 장성원 재선임의 건	찬성	반대
제3호	감사 선임의 건		
3-1	감사 조문환 재선임의 건	찬성	반대
3-2	감사 조수원 재선임의 건	찬성	반대
제4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5호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39기(2014.01.0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당 30원 (배당 총액 21.2억원)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사내 이사	고삼규	1952.01	2	재선임	- 서울대 사범대학 졸업/서울대 경영대학원 수료 - 상공부사무관/재무부사무관
	정상문	1962.11			- 건국대 졸업/일리노이주립대 졸업 - 태림포장공업 부사장, 사장
사외 이사	왕기현	1954.10	2	재선임	- 경기대 졸업/한양대 행정대학원 수료 - 행정사무관/국세청서기관/충부지방국세청장
	장성원	1939.10			- 서울대 사범대학 졸업 - 동아일보 데이터뱅크국 국장/제15대, 16대 국회의원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감사	조문환	1949.07	3	재선임	상근	- 고려대 졸업 - 제일은행 강남역지점장/코레일전기 감사
	조수원	1935.02			비상근	- 태림포장공업 감사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6(2)	6(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5억원	25억원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2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억원	2억원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약 53억원 가량 감소해 총 자산은 약 5,628억원 수준, 부채는 약 207억원 감소한 1,835억원 수준이며, 자본 총계는 약 154억원 증가한 3,793억원 달성
-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48억원 감소하여 약 3,52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매출원가 감소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약 14억원 증가하여 약 15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금융수익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37억원 증가하여 179억원 달성
- 주당 30원의 배당 결정은 전년 대비 5원 증가한 수준으로, 배당 총액은 약 21.2억원 수준. 당기순이익 대비 약 12%를 배당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배당 수준이 다소 향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권고함

Discussion

Analysis

▶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태림포장공업은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49억원 감소한 3,52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매출원가 감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4억원 증가하여 159억원을 달성하였다. 여기에 영업외손익이 전년 대비 약 25억원 증가하고 금융수익이 다소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37억원 증가하여 179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순이익 증가에 따라 이익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154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약 207억원 가량 감소하여 1,835억원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약 53억원 가량 감소해 총 자산은 약 5,628억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태림포장공업 이사회는 주당 30원의 배당을 결정하였으며, 총 배당금은 약 21.2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당기순이익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전년도 주당 25원 배당 대비 약 5원 증가한 수준이다. 전년 대비 배당 수준이 다소 향상된 점을 고려할 때, 태림포장공업의 배당 성향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익배당 수준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태림포장공업은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사내이사인 고삼규 이사와 정상문 이사의 재선임을, 그리고 기존 사외이사인 왕기현 이사와 장성원 이사의 재선임을 의결하고자 함
-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장성원은 200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태림포장공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래 지금까지 약 10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해 왔음
- 동일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사외이사로 재직할 경우 최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확고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외이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장성원 후보자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

Discussion

Proposal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사내이사	고삼규	1952.01	2	재선임	- 서울대 사범대학 졸업/서울대 경영대학원 수료 - 상공부사무관/재무부사무관
	정상문	1962.11			- 건국대 졸업/일리노이주립대 졸업 - 태림포장공업 부사장, 사장
사외이사	왕기현	1954.10	2	재선임	- 경기대 졸업/한양대 행정대학원 수료 - 행정사무관/국세청서기관/중부지방국세청장
	장성원	1939.10			- 서울대 사범대학 졸업 - 동아일보 데이터뱅크 국장/제15대, 16대 국회의원

Analysis

▶ 장기간 재직한 사외이사의 재선임 문제

태림포장공업은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 사내이사인 고삼규 이사와 정상문 이사의 재선임, 그리고 사외이사 왕기현, 장성원 이사의 재선임 의안을 상정하였다.

고삼규 이사와 정상문 이사는 20년 이상 태림포장공업에 재직하며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대표이사 사장으로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아울러 2014년 태림포장공업이 전년 대비 매출이 일부 감소하였음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두 사내이사 후보자의 재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그리고 왕기현 사외이사 후보자는 국세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세무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직에 오래 몸 담으며 사회적인 덕망을 쌓아 온 인물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시 왕기현 후보자의 재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하지만 장성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2005년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래 지금까지 약 10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하는 사외이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된다. 이에 장성원 사외이사 후보자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안함.

- 현재 태림포장공업은 2명의 감사를 두고 있으며, 조문환 감사는 상근, 조수원 감사는 비상근으로 재직하고 있음
- 조문환 감사 재선임 후보자는 과거 코레일전기 감사로 재직한 바 있는데, 코레일전기 감사 재직 시절 태림포장공업 부사장이라는 이력으로 활동한 점,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 태림포장공업의 부사장이라고 언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 경영에 개입하여 사내임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조문환 감사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
- 조수원 감사 재선임 후보자는 2014년 3분기말 기준으로 약 32년간 재직해 온 점, 그리고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사업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감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판단되어 조수원 감사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

Discussion

Proposal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감사	조문환	1949.07	3	재선임	상근	- 고려대 졸업 - 제일은행 강남역지점장/코레일전기 감사
	조수원	1935.02			비상근	- 태림포장공업 감사

▶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 선임의 문제

태림포장공업은 현재 조문환, 조수원 2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그 중 조문환 감사는 상근으로, 그리고 조수원 감사는 비상근으로 재직하며 일반 업무 및 회계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조문환 감사의 경우 과거 활동 이력 등을 통해 판단해 볼 때, 감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다소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문환 감사 후보자의 과거 이력 가운데 코레일전기 감사 이력이 있다. 코레일전기는 한국철도공사의 100% 자회사였던 회사로서 조문환 후보자는 2007년 4월 코레일전기 감사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당시 코레일전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문환 후보자의 당시 이력은 태림포장공업 부사장이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조문환 후보자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역시 조문환 후보자를 태림포장공업 부사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조문환 후보자가 태림포장공업의 감사로 신규 선임된 것은 2008년 3월 정기주총회에서이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조문환 후보자가 형식적으로는 태림포장공업의 상근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 경영에 참여하는 사내임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로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조문환 감사 후보자의 재선임을 부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감사 후보자인 조수원 후보자는 2014년 3분기말 기준으로 태림포장공업에 32년간 재직하였다. 태림포장공업을 창업한 정동섭 회장이 약 39년간 재직한 것에 고려하면 사실상 창업주와 유사한 재직 기록이다. 실제로 조수원 후보자는 태림포장공업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정동섭 회장의 배우자이므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사실상 지배주주 가운데 한 명이다. 즉,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 본인인 셈이다. 조수원 후보자가 감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수원 후보자의 감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태림포장공업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태림포장공업이 관계기업 및 특수관계법인과 상당히 빈번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도 태림포장공업은 관계기업인 동일제지, 태성산업, 월산, 동원제지 등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매입 거래 관계를 맺었으며, 특수관계법인인 동광판지로부터 약 150억원 규모의 매입 거래를 하였다.

동일제지, 태성산업, 월산, 동원제지 등은 태림포장공업이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대주주인 법인이지만 동광판지의 경우 태림포장공업과 특별한 지분 관계가 없으며, 사실상 정동섭 회장의 특수관계법인인 정상문, 정유천 등이 지배하고 있는 오너 일가 소유의 법인이다.

이러한 관계법인 및 오너 일가의 법인과 밀접한 거래 관계를 형성할 경우 자원과 이익 배분에 있어서 최적화를 달성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과도한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태림포장공업의 감사 기능은 분명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전년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이사 6명에 대해 25억원으로 이사 보수 한도를 유지하고자 함
- 2014년 3분기까지 이사 보수 지급액은 약 12.4억원이며, 2013년에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해 이사 7명에 대해 25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약 16억원을 집행하였음
- 이사 수 및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 점, 그리고 과거 보수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사 보수 한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함
-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 2명에 대해 2억원의 감사 보수 한도 의안을 상정
- 2014년 3분기까지 감사 2명에 대해 지급한 보수는 약 1억원 수준이며, 2013년 감사 2명에 대한 보수한도 2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규모는 약 1.2억원 수준
- 감사 수 및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과거 보수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해 볼 때 감사 보수 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함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6(2)	6(2)	감사의 수	2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5억원	25억원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억원	2억원

Analysis

▶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태림포장공업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해 이사 6명에 대해 25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주주총회 승인 조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태림포장공업이 2014년 3분기까지 지급한 이사 보수액은 약 12.4억원 수준이며, 2013년에는 사외이사 2명 포함해 이사 7명에 대해 25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약 16억원을 집행하였다. 보수 한도 및 보수 지급 내역에 큰 변동이 없으며 보수 한도 대비 집행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감사 보수 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 2명에 대해 2억원의 보수 한도 의안을 상정하였다. 2014년 3분기까지 감사 보수 지급액은 약 1억원이며, 2013년에는 2명의 감사에게 보수 한도 2억원 가운데 약 1.2억원을 집행하였다. 감사 수 및 보수 한도 수준에 큰 변동이 없고 보수 한도 대비 집행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